

# 달라진 페퍼스...구단 최다승 신기록 달성



현대건설에 3-2 승...3연패 탈출하며 6승 달성  
박정아 27득점·장위 블로킹 등 공수에서 완벽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연패를 끊고 안방에서 구단 최다승을 달성했다.

페퍼스는 29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세트스코어 3-2(25-22 25-23 19-25 26-24 15-12)로 꺾고 구단 최다 '6승'을 기록했다.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는 초반 박빙 양상으로 전개됐고, 마지막에 국내 공격수들의 1-2점 포인트로 승패가 엇갈렸다.

이날 박정아는 27득점(공격 성공률 38.71%)을 올리면서 활약했고 이한비가 20득점(41.67%)으로 든든하게 뒷받쳤다. 테일러가 12득점, 장위가 11득점으로 승리를 합작했다.

팀 리시브 효율은 27.18%로 상대(38.78%)에 못 미쳤지만 37.5%의 공격 성공률로 현대건설의 36.41%에 소폭 앞섰다.

이날 페퍼스는 오투기같은 생명력으로 현대건설에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1세트에서는 테일러가 킥오픈으로 먼저 1점을 따내고 시작했다.

상대 외국인선수 모마의 스파이크가 네트에 걸리면서 3-3동점이 만들어졌지만 이후 현대건설은 5연속 득점을 터뜨렸고 점수 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17-23 상황 박정아가 킥오픈-시간차 공격에 블로킹 득점 등으로 22-24까지 추격했지만, 박은서의 스파이크 서브가 코트 밖으로 나가면서 첫 세트는 현대건설의 차지가 됐다.

2세트 역시 박정아가 선취점을 올리고 시작했지만, 한 자릿수 점수차로 내내 상대를 앞설지 못했다. 21-22에서 장위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며 블로킹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한비가 과감한 공격으로 연속 득점을 해내면서 역전에 성공했고, 박수빈이 침착한 오픈으로 상대 코트에 공을 찍으면서 2세트를 마무리했다.

페퍼스는 2점차 승리로 반격에 성공했다.

3세트의 득점 흐름은 완전히 현대건설 쪽으로 기울었다.

세트 초반 1점씩 뒤쳐졌던 페퍼스, 열심히 따라붙었지만 7-7 동점 이후 정지윤-모마-이다현이 연이어 점수를 올리며 달아났다.

하혜진과 장위의 블로킹 득점, 길어진 랠리 끝에 박정아가 점수를 더하면서 16-18까지 추격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24상황 박수빈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3세트를 상대에게 내줬다.

4세트는 치열한 접전이었다.

11-12에서 박정아가 완벽한 직선코스를 연속으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9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구단 최다 '6승'을 기록했다. 페퍼스가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KOVO 제공>

로 해내면서 14-13 역전에 성공했다.

16-16동점 상황에서 하혜진의 블로킹 득점, 이한비의 오픈 성공에 상대 위파위의 넷터치까지 연속 5득점이 더해져 페퍼스는 20-16으로 앞섰다.

하지만 추격을 허용한 페퍼스, 장위의 속공이 정지윤에 가로막히면서 24-24 동점이 됐다.

4세트에서만 11득점을 올린 '클러치 박' 박정아가 킥오픈으로 25-24를 만들었고 모마의 백어택이

그대로 아웃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규리그 3라운드 마지막 승부, 페퍼스가 5세트로 끝고 갔다.

두 팀은 3점 차 이상 점수 차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앞치락 뒤치라리는 양상을 보였다.

12-11상황 장위의 블로킹 득점에 박정아가 킥오픈을 성공시키며 세트포인트를 만들었다.

상대 정지윤의 킥오픈이 아웃되면서 긴 승부는

마침표를 찍었고 최종 승자는 페퍼스가 됐다.

창단 첫 단일 시즌 6승 달성에 성공한 페퍼스는 폴세트 승리로 승점 2를 더하면서 5위(6승 12패·승점 19) 자리를 유지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1월 9일 오후 7시 화성종합 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와의 4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2024 '정규리그 우승' 전남 바둑, 챔프전 준우승

부산 이봉장학회에 0-2패

2024 KBF 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팀 전남바둑이 챔피언결정전에서 부산에 석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기명도 단장, 신철호 감독이 이끄는 전남바둑은 26일 경기도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4 KBF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부산 이봉장학회에 0-2로 패했다.

전남 바둑은 정규리그 5위로 포스트시즌행 마차를 탄 부산 이봉장학회와의 결승전에서 1국에서 2-3, 2국에서 1-4로 각각 패했다.

앞서 전남바둑은 정규리그에서 9승1패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며 지난 2018년 이후 첫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리그 우승과 통합 준우승으로 올해를 마무리한 전남바둑은 KBF 바둑리그 통합 우승의 목표를 내건으로 마무리했다.

신철호 감독은 "올 한 해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해줬고, 특히 끈끈한 팀워크가 정규리그



전남 바둑이 2024 KBF 바둑리그 준우승을 기록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우승의 원동력이었다"며 "챔피언결정전에서 아쉽게 패해 준우승한 게 못내 아쉽다. 내년에는 올해 아쉬웠던 점을 반드시 보완해 전승 우승과 통합 우승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바둑에는 1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최수용 금호고 감독, 광주축구협회장 당선

최수용 금호고 감독이 광주축구협회장을 맡아 광주 축구 발전에 앞장선다.

최수용 감독은 지난 26일 진행된 제4대 광주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현 축구협회장인 박현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금호고 감독과 교사로 30년 가까이 축구현장을 누빈 최수용 당선자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기술위원과 강사도 역임했다.

그는 기성용, 이승기, 김태환, 나상호, 엄원상, 엄지성, 허을, 이희근, 정호영 등 금호고 출신의 국대급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한국 축구 발전에도 기여했다.

한편 최수용 당선자는 ▲유소년 축구의 영재 발굴프로젝트와 국외 교류를 통한 성장속도 가속화 ▲여자축구 창단과 육성 ▲축구장 건립 ▲동호인



축구 활성화를 위한 앱을 개발 ▲축구장 사용 시스템 및 경기 매칭 ▲경험 많은 심판의 큰 무대 배출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남녀 프로테니스 2025시즌 개막

다음달 12일 호주오픈에 조코비치·안니크 등 출전

남자프로테니스(ATP)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2025시즌이 29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2025년 11월까지 이어질 남녀 프로테니스 투어 시즌은 이번 주 호주와 홍콩, 뉴질랜드에서 개막전을 치른다.

먼저 ATP 투어의 경우 브리즈번 인터내셔널과 홍콩오픈(이상 총상금 76만6290달러)이 각각 29일과 30일부터 본선 경기를 시작한다.

또 WTA 투어는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총상금 152만달러)과 ASB 클래식(총상금 27만5000달러)이 역시 29일과 30일에 본선에 들어간다.

해마다 연초에 열리는 대회들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올해 호주오픈은 2025년 1월 12일부터 2주간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진다.

ATP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는 노바크 조코비치(7위·세르비아·사진)가 톱 시드를 받았다.

조코비치가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올해 10월 상하이 마스터스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현역 시절 라이벌이었던 앤디 머리(영국)를 최근 코치로 선임한 조코비치는 올해 호주오픈에서 개인 통산 25번째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에 도전한다.

WTA 투어 단식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는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 출전한다.

권순우와 홍성찬이 2025년 1월에 입대할 예정이고, 여자 국내 랭킹 1위 장수정은 30일 태국 논타부리에서 개막하는 국제테니스연맹(ITF) 대회(총상금 6만달러)에 나간다. 현재 세계 랭킹 261위 장수정은 5월 프랑스오픈 예선에 나갈 정도까지 랭킹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연합뉴스

## 장유빈, 2025년 골프계가 주목하는 유망주 '톱15' 선정

미국 골프 채널 선정

2024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개인상을 휩쓴 장유빈이 2025년 세계 골프계에서 기대되는 유망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29일 '2025년 두각을 나타낼 프로 골퍼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장유빈은 엄밀히 말해 이 '톱10' 명단에는 들지 못했으나 골프채널이 순위 외에 '톱10' 선정에 고려했던 선수 명단 5명에 포함돼 '톱15'에 선정된 셈이 됐다.

골프채널이 선정한 이 명단의 기준은 '25세 이

하로 아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나 DP 월드투어, LIV 골프 우승이 없으며 세계 랭킹 100위 내에 든 적이 없는 선수'다.

2002년생 장유빈은 올해 KPGA 투어에서 군산 CC오픈과 백송홀딩스 아시아드CC 부산오픈에서 우승하며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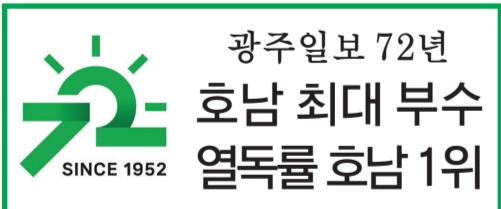
이달 초에는 한국 국적 선수 최초로 LIV 골프 진출을 선언, 2025시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골프채널이 선정한 이 순위 1위는 칼 빌립스(호주)가 차지했다.

빌립스는 올해 8월 PGA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

10위 내 아시아 국적 선수는 8위 히라타 겐세이(일본)가 유일하다.


히라타는 올해 9월 K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아시아투어가 공동 주관한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했으며 외조부와 외조모가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일본으로 이주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41